

메이지기 일본의 서양 문명 수용과 번역

최 경 옥
(한양대)

I. 들어가며

1868년 ‘메이지(明治) 유신’이라고 하는 일본 근대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면 서 일본에 대한 세계인들의 시각은 달라졌다. 중국의 아류, 혹은 네덜란드의 설 익은 친구 정도로 인식되었던 일본이, 크게 변하는 계기를 맞은 것이다. 그것은 전세계가 놀랄 정도로 자기 변신을 쉽게 해내는 일본에 대한 감탄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본고는 그와 같은 놀라움을 일본의 근대 번역어 연구 속에서 새롭게 조명 하고자 하는 의도로 구상되었다. 필자는 메이지 시대 일본이 새로운 서양식 자본주의 문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언어문화도 급속하게 변화하였다는 관점에서 논지를 출발하고자 한다. 바로 그 관점에서 메이지기 번역 한자어도 서 구 언어에 대한 새로운 동경으로서 ‘제2의 창작’을 꿈꾸었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 본고는 순전히 그와 같은 일본 언어의 놀라운 변신에 대해 진단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메이지 초기의 번역’이라는 화제를 공시적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근대화 과정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 서양사회를 모범으로 한 전체 중의 하나가 광범위한 서양문헌의 번역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시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전 시대인 도쿠가와 시대의 문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토록 짧은 기간에 문화의 거의 전 영역에 걸쳐 고도로 세련된 번역을 달성하는 놀라운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일본 사회에 그럴만한 역사적 경험과 언어학적 수단, 나아가 지적 능력이 없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丸山眞男, 加藤周一, 1998: 35-50).

이미 도쿠가와 막부는 나가사키를 대외 문호로 개방하여 네덜란드와 교역·통상하는 등 ‘네덜란드 중심의 서양문화와 학문’ 등을 수용하는 것에 익숙해 있었다. 특히 막부 말기 및 유신 개혁기에 많은 영향을 미친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1657~1725),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1666~1728) 등의 난학(蘭學) 연구 자체가 유신 이후 양학을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18세기 일본의 지적 상황은 그 시기 일본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을 요청했으며, 이러한 요구는 전혀 이질적인 서양 문명의 번역에 의하여 더욱 가속화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메이지 초기 일본이 서양어를 번역해야만 했던 시대적·사회적 환경, 그리고 그 속에서 등장하는 전통주의와 근대주의적 관점을 메이로쿠샤 회원의 활약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메이지기 일본의 서양어 번역을 통하여 서양 사상의 수용법은 무엇이었는지 고찰해 보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근대화의 산물인 번역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했던 한국에게 일본의 번역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일본의 근대화 관점과 서양 문명의 수용

19세기 이전부터 일본의 지식인 중에서 서양문명이 지니고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봉건막부사회를 개혁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른바 일본 내에서 근대화 형성의 제1세대 지식인으로 불리고 있는 와타나베 가진(渡辺崋山, 1793~1841), 다카노 초에이(高野長英, 1804~1850), 시마즈 나리아키라(島津齊彬, 1809~1859) 등이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 있었다. 이들은 당시 봉건적인

도쿠가와 막부체제를 개혁하고 근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부국강병책에 있다고 판단하고, 서양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개국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들 제1세대 지식인들은 도쿠가와 막부정권의 탄압으로 인하여 자신의 개혁 논리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만다(源了圓, 1968: 18-35).

그 뒤를 이어서 막부체제 속에서 부국강병 원칙을 통하여 강력한 국가주의 체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제2세대 지식인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군사 부문의 개혁에 관심을 보이는 무사 출신 집단으로 사쿠마 쇼잔(佐久間象山, 1811~1864), 요코이 쇼난(横井小楠, 1809~1869), 마키 이즈미노카미(眞木和泉守, 1813~1864)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들은 외세배척을 중심 사상으로 하는 양이론(攘夷論)에서 서구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개국론(開國論)으로 전향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의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서양의 사상·문화와의 접합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서 일본 사회의 근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절충적·과도적인 성격의 개혁을 지향하고 있었다(源了圓, 1968: 48-65). 이들 제2세대 지식인들의 개국에 대한 논의는 이후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1830-1859), 하시모토 사나이(橋本左内, 1834~1859) 등 국수주의적 정한론자(征韓論者)¹⁾들에게 계승되어 메이지 정변의 발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대체로 일본의 근대화 과정은 메이지 정변을 계기로 하여 자본주의적 발전 단계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일본의 근대화는 부국강병이라는 국가적인 요청에 기초하여 구미의 선진문화를 섭취·수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그래서 부국강병에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법제, 산업, 군사 등의 분야에 중점을 둔 반면, 서양문화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근대 합리주의 정신에 대해서는 의식적으로 회피했다. 이를테면 도쿠가와 봉건막부체제 속에서 근대화를 지향했던 사쿠마 쇼잔(佐久間象山, 1811~1864)의 ‘동양도덕·서양예술’,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1830~1859)이 주장한 ‘화혼양재’(和魂洋才)와 같은 개념은 일본적 전통 속의 근대성을 표현하는 것이었다.²⁾

1) 요시다 쇼인 등의 정한론은 주로 대내적인 위기를 방어적인 측면에서 개혁할 것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정을 위한 대외적 ‘위험요소’인 조선 등에 대해 공세적인 침략 전쟁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논의를 담고 있다. 바로 이 정한론이 이후 메이지 정부의 권력 투쟁의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대외 침략의 이론적·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즉, 일본의 근대화는 외형적·형식적으로는 법제·산업·사회과 같은 분야에 서 근대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였으나, 내면적·정신적으로는 서양의 근대 합리 주의 정신, 개인에 대한 자각, 인격·기본적인 인권 존중 의 측면에서는, 수용은 되었으나 그다지 큰 작용을 하지 못하였다.(唐澤富太郎, 1976: 45-55) 이러한 불균형한 일본 근대화의 모습은 서양어 번역의 측면에서도 명백히 나타나게 되 며, 당시 서양어의 번역은 주로 메이로쿠샤(明六社)라는 메이지기 유일의 학술 결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III. 서양 문명 수용을 위한 번역 활동

1. 서양어 보급과 번역의 쟁점—「메이로쿠샤(明六社)」를 중심으로

1874년 2월 미국에서 돌아온 모리 아리노리(森有禮, 1847-1889)가 처음 건 의한 것을 계기로 니시무라 시게키(西村茂樹, 1828-1902) 등은 계몽적인 학술 결사로서 ‘메이로쿠샤(明六社)’를 정식으로 발족시켰다. 메이로쿠샤의 기관지 『메이로쿠쟈시』(明六雜誌) 제1호에서 니시무라는 학술 문예에 관한 탁견과 고론 을 통해, 우매한 민중의 눈을 뜨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메이로쿠샤는 니시 무라가 말한 것처럼 당대 일류 지식인들이 참가하여 결집한 메이지 초기의 유 일한 학술결사였다.

메이로쿠샤 회원은 발족 당시 니시무라 시게키(西村茂樹, 1828~1902), 쓰 다 마미치(津田眞道, 1829~1902), 니시 아마네(西周, 1829~1897),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 1832~1891),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 1836~1916), 미쓰 쿠리 슈헤이(箕作秋坪, 1825~1886),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 스기 고지(杉亨二, 1828~1917), 미쓰쿠리 린쇼(箕作麟詳, 1846~1897), 모리 아리노리(森有禮, 1847~1889) 등 총 10명이었다. 그 후 회원 수가 대폭 늘어

2) ‘동양도덕 서양예술’은 동양사상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성(도덕정신)과 서양 문명의 우수성을 대표하는 ‘과학기술’을 조화롭게 수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개념을 구체적으로 표현·계승한 것이 일본의 도덕을 기본으로 하여 서양의 과학·기술 을 수용한다는 ‘화혼양재’인 것이며, 한국의 ‘동도서기’(東道西器)와 중국의 ‘중체서 용’(中体西用)과 일맥상통하는 근대화의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창립 1년이 되는 1875년 2월에는 약 30명의 회원이 참여하였다. 기관지 『메이로쿠갓시』는 1875년 11월까지 통권 43호가 간행되었는데, 그 동안 회원들이 집필한 백여 편의 논설은 정치, 경제, 법률, 사회, 외교, 종교, 역사, 교육, 자연과학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있었다. 메이로쿠샤는 1875년 11월 『메이로쿠갓시』가 간행정지되면서 해산되었지만, 메이로쿠샤가 지닌 학술 단체로서의 성격은 미국의 교육학자로 당시 문부성 학감을 지낸 데이비드 머레이(David Murray)의 건의를 통해 1879년 11월에 성립된 ‘도쿄학사원회’(제국학사원의 전신)에서 발전적으로 계승하였다.

그들은 사회를 인식하고 개혁하기 위해 전통적인 유교 질서는 물론 서양문명이 지닌 선진 지식까지 소화한 ‘백과전서파’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메이로쿠샤 회원들이 수용하고 있는 서양문명에 대한 이해는 관점에 따라 서로 달랐다고 할 수 있다. 국권주의적 관점이 강했던 가토 히로유키와 니시 아마네 등은 사회진화론 및 독일식 국가주의 사상에 기초한 개념에 대한 번역을 중시하였다. 반면에 니시무라 시게키, 나카무라 마사나오 등은 민권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의 민주주의적 생활 원리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동일한 메이로쿠샤 회원이라고 해도 사상적인 유형에 따라 관심 영역이 달랐으며, 그것은 곧바로 서구문명에 대한 번역 사업에서도 서로 대립하는 쟁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면, 가토 히로유키 등이 왕정옹호와 관련된 국제법 용어 번역에 관심이 많은 반면, 니시무라 등은 인권, 자유 등의 민주주의 개념, 서구식 개인주의 풍토에 얽힌 용어 해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문명 번역과 관련하여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 바로 모리 아리노리와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모리 아리노리는 민권은 곧 국권일 수 있다는 중도적 입장에서 독일식 국가주의 문화를 수용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사실상 독일을 중심으로 한 서구문명을 근대 한자어로 번역하는 일에도 열심이었지만, 서구 언어 그 자체를 원래의 의미 그대로 활용하기를 원했던 ‘국권적 자유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일본 언어에 남아 있는 독일어식 표준어, 예를 들면 ‘제미’(세미나) 등은 사실상 모리 아리노리가 문부상(文部相)을 역임한 시절의 신조어라고 할 수 있다.

후쿠자와 유키치도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민권에 관심을 가진 문명개화론자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후쿠자와는 미국의 독립혁명 당시의 민권사상과 유럽의 사회진화론을 수용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번역어 작업 역시 그런 관점에서 당시 서구 언어를 일본의 한문학 표현 방식으로 절충하는 과정에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들어 후쿠자와는 society를 번역할 때, 그번역어로 交際(교제), 人間交際(인간교제), 國(국가), 世人(세인)등 다양한 번역어를 내놓은 바 있다. 특히 交際(교제)와 人間交際(인간교제)는 번역어가 나오기 이전, 즉 기존의 일본어에서도 사용하고 있던 단어였기 때문에, 본연의 의미에서 약간 다른 차원 즉 추상적인 의미로 변화하게 된다. 후쿠자와가 이와같이 전혀 새로운 번역어를 만들어내지 않고 일본어에서 사용되고 있던 단어를 굳이 끄집어내어 번역어로 사용한 것은, 되도록이면 일본인의 일상적 언어 생활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번역어로 사용하려 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후쿠자와는 동양의 전통적인 사상이 담고 있는 표현 그 자체를 중심으로 하여 서구 민주주의 사상에 표현된 개념을 의역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예를 들면, 벤자민 프랭클린의 ‘민권사상’에 대한 명언을 동양의 전통적인 ‘인내천’(人乃天) 사상에서 표현하는 부분으로 의역한 것이 그 실례라고 할 것이다. 결국 후쿠자와식의 번역 작업의 기준은 서구 언어를 일반 민중이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메이로쿠샤 회원들의 이념의 성향이 서로 달랐다고 해도, 이들이 결정적으로 갈등하면서 분열하고 해산까지 이르게 된 직접적인 경위는, 당시 추진하고 있던 서구식 의회 민주주의를 수용하고자 하였던 민선의원 건립과 관련된 찬반 논쟁이었다. 이는 한 마디로 말하면, 새로 집권한 메이지 신정부에 대한 성격 규명과도 연관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국가 중심적인 체제의 구축, 혹은 서구식 의원내각제 형태의 민주주의 실현 등 여러 현실 상황과 관련된 논쟁이었다. 이미 메이로쿠샤 회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계몽사상가들이 온건적 입장의 민권주의자 입장에서 프랑스 계몽주의와 영국 공리주의를 수용하면서도, 전통적인 황도주의 입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천황제 중심의 계몽전제주의를 무시하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당시 상황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메이로쿠샤 회원들은 사실상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 초기에 이르기까지 계몽사상가 이상의 집단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메이로쿠샤는 회원 간 이념의 차이로 1875년 해산에 이르게 되며, 이

후의 일본의 계몽사상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국가의 이익을 중시하는 새로운 과제를 구상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게 된다. 그래서 자유주의 사상을 요구하는 식의 ‘메이로쿠샤’식의 민권주의는 더 이상 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

2. 번역을 통해 본 서양사상의 수용법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이 서양사상을 본격적으로 수용하게 된 것은 메이지 정변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양사상을 수용하게 된 계기도 일본인이 전통적으로 수용하고 있던 생활과 사고를 비판하기 위한 내재적인 의욕과 적극적인 자세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그와 같은 준비자세로서 여타 아시아 국가들이 ‘philosophy’라는 서양 원어를 ‘형이상학’ 등으로 해석했던 것에 반해 일본은 ‘철학’(哲學)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philosophy’에서 엿볼 수 있는 인간의 능동적인 행위를 강조하였다.

그런데 근대 일본에서 서양사상을 수용한 것은 어디까지나 원리적인 차원의 전통적인 사상과 무질서하게 병존하는 형태로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는 자신의 저서『일본의 사상』에서 이를 ‘사상적인 잡거성’(雜居性)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한 바 있다. 말하자면 일본이 서구사상을 수용하는 과정은 서양이나 중국과 달리 사상사의 좌표축이 되어야 할 기본 원동력이 본래 부재한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모든 사상과 관념을 ‘기회주의적으로 포착’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서양사상도 이와 같은 심성·세계관·사고양식과의 원리적인 대결을 통해서 자기 변혁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당시 일본의 사상가들은 서양 학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이유가 일본의 독립과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특히 국가 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서양 제도와 문물의 기반이 되는 정신, 특히 사상과 도덕 등을 습득하기 위한 실학주의 정신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았다. 니시 아마네도 그런 관점에서 자신의 동료 마쓰오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서양의 경제학·철학을 배우는 것이 곧바로 일본의 부국강병 및 인민복지를 위하여 절대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니시 아마네는 오규 소라이(荻生徂來, 1666-1728)의 실학 정신을 계승하고, 그런 일본적인 정서 속에서 서양 학문 등에 관심을 가진 실학적인 성격이 강한 학자였다.

니시 아마네는 서양사상 중에서도 17~18세기 유럽의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의 성과를 반영하여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지식 기반을 구축한 밀과 콩트 등의 공리주의·실증주의 사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873년 니시 아마네는 『생성발온』(生性發蘊)에서 서양사상의 추세에 대해 분석하고, 콩트 철학을 소개하면서 ‘Philosophy’를 ‘여러 학문을 통일시키는 학’이라는 의미의 ‘철학’으로 번역하였다.

각 과(科)의 학술은 각자 여하에 따라서 정밀한 영역에 이르러야 하는데, 또 서로 합하여 그것을 총괄하는 철학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성현들이 통찰한 바이다. (니시아마네, 1873, 『생성발온』, 46-73)

이와 같은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니시 아마네는 1874년 『백일신론』(百一新論)에서 ‘철학’이라는 개념을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물리(物理)를 참고로 하여 심리(心理)에 세밀하게 미치고, 천도(天道)와 인도(人道)를 분명하게 논하여 교(教)의 방법을 세우는 것이 philosophy, 곧 철학인 것이다. (니시아마네, 1874, 『백일신론』, 20-72)

그가 철학(哲學)이라는 번역어에서 기본 개념으로 세운 것은 바로 “모든 세계의 도덕은 동일한 것”이라는 ‘백교일치(百教一致)’라는 개념이다. 니시 아마네가 볼 때, 종래 일본에서 널리 보급된 주자학 중심의 유학사상은 법과 도덕(教)의 구별이 모호하고, 선천적인 자연 필연의 이치로서의 물리(物理)와 후천적인 인사상의 이치로서의 심리(心理)를 구분하지 못하는 애매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과 도덕, 물리와 심리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백교(百教) 및 백학(百學)을 통일적으로 이해하는 기본 학문으로서 철학(哲學)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니시 아마네는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과 밀(J.S. Mill, 1806~1873) 등의 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 사상에 기초한 도덕론으로서 1875년 『인생삼보설』(人生三寶說)이라는 저서를 발간한다. 그는 이 책에서 인생의 최고 목적을 ‘일반 복지’(general happiness)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고, 이는 세 가지 가치(삼보: 건강, 지식, 부)를 존중하고 추구함으로써 달성된다고 주장

한다. 말하자면 밀(J.S. Mill, 1806-1873)의 공리주의 관점을 적극 수용하여 이 기심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등 당시 일본의 전통적이고 소극적인 유교 덕목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성, 즉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발현하는 자연법사상에 기초한 천부인권을 제안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인간의 천성에 기초한 권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法이나 教나 모두 인간의 동일한 性에 기초한 것으로, 이 인간성으로 갖추어진 자애자립(自愛自立)의 마음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근원, 그리고 법의 근원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성 속에 갖추어진 인애(仁愛)의 情이 바로 教의 근원인 것이다. (니시 아마네, 1875, 『인생삼보설』 45-86)

이는 서양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관념을, 천리(天理)와 천도(天道)를 대표로 하는 유교사상, 즉 주자학적인 자연법 사상을 매개로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동양 주자학의 최고의 도덕으로서의 ‘理’를, 서양의 중산층(gentleman) 중심의 도덕과 결부시킨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니시 아마네는 전통적인 유교사상과 서양사상을 공리주의적 사상으로 절충·결합시키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3. 민권론과 국권론의 대립 그리고 서양사상의 번역법

메이지 유신 이후 민간인 차원에서 일본의 부국강병 정책에 관심을 보인 것이 바로 ‘메이로쿠샤’라고 할 수 있다. 메이로쿠샤 회원들은 메이지 정부의 개국진취 및 문명개화 정책에 호응하여 서구 근대사상을 도입·소개하는 활동에 진력하였다. 철학·종교·도덕 등의 사상논쟁에서 출발하여 생활에 밀착한 실학적 관점에서 정치·법률·경제·국어론·부인론·복장론 등의 백과전서적인 학문에 대한 종합적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런데 메이로쿠샤가 서구 계몽사상을 수용하는 과정 자체가, 일본 정부의 절대주의체제와 대립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회원 내부에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게 된다. 이는 메이로쿠샤의 계몽 주체들이 원래 막부체제(幕府體制)의 구(舊) 관료 혹은 유신 관료 출신으로, 유교적인 교양을 겸비하였으면서도 서구 유학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았다는 점과 관계가 깊다. 즉, 기본적으로 메이로쿠샤 회원 구성이 당시의 일반 민중과는 거리가 있는 계층 출신이라는 점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메이로쿠샤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중의 대표적인 것이 후쿠자와 유키치와 메이로쿠샤 회원 간의 ‘학자 직분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1874년 후쿠자와는 『학문의 권장』 제4편 「학자의 직분을 논함」에서, “국가의 독립과 문명을 목표로 하는 현 시점에서 ‘전제 정부’와 ‘무기무력한 우민’을 분리하는 것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학자는 官으로부터 私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후쿠자와 자신이 “인간 위에 인간을 만들지 않았고, 인간 밑에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서구 계몽주의 관점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메이로쿠샤 회원들은 ‘관민 일체론’ 혹은 ‘관민 조화론’의 입장에서 개인과 국가가 상호조화 하는 과정에서 자유주의 이념을 수용하는 추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또한, 문명개화적 관점과 국가주의적 관점이 서로 대립하기도 하였다. 당시 일본의 정세를 보면 대외적으로는 서구자본주의 열강의 아시아 침략이 고조되는 등 위기 상황이 조성되고 있었고, 대내적으로는 아래로부터의 자유민권운동 등 부르주아적인 요구가 급증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메이지 정부가 국가 중심적으로 서구식 신문명을 구축하는 노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는데, 이는 후쿠자와의 『문명론의 개략』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로 표현되었다.

목적을 정해서 문명으로 나아가는 한 가지 일만이 있을 뿐이다. 그 목적이 라는 것은 무엇인가? 안과 밖의 구별을 분명히 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다. ... 따라서 나라의 독립은 목적이며, 국민의 문명은 이 목적에 도달하는 수단인 것이다. (후쿠자와유키치, 1875, 『문명론의 개략』 21-25)

후쿠자와의 이 논리는 1874년 메이로쿠샤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민선의원 설립건백서」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결국, 민선의원 설립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주장하는 시기상조론 및 우민론에 기초한 반대론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리하여 1875년 메이로쿠샤는 메이지 정부가 공포한 「참방률」, 「신문지 조례」 등의 언론탄압법 등으로 인해 자체 해산되기에 이른다. 이는 메이로쿠샤로 상징되는 계몽적 문명개화론이 절대주의를 지향하

는 국가주의 논리에 제압되는 비극적인 현상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서양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메이지 초기에는 주로 밀(J.S. Mill, 1806~1873)의 공리주의적 관점의 저작들을 주로 소개되었다. 우선,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 1832~1891), 가 번역한 『자유지리』(自由之理)를 번역 출간한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1870년대 후반 나가미네 히데키(永峰秀樹)가 『대의정체』(代議政體)를 번역하고, 이어 하야시다다스(林薫, 1850~1913) 등이 『밀경제론』을 니시 아마네(西周, 1829~1897)가 『이학』(利學, Utilitarianism)을 속속 번역 출간한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1870년대 후반 이후로는, 동일한 수준의 공리주의 사상 서라고 하더라도 J.S. 밀보다는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1903)의 사상을 대폭 소개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1877년 오자키 유키오(尾崎行雄, 1859~1954)가 스펜서의 'Social Statics'를 『권리제강』(權利提綱)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였으며, 스즈키 요시무네(鈴木義宗)는 『대의정체 Representative Government』를 『사변살씨대의정체론』(斯辺撒氏代議政體論, 1878)으로 번역·소개하였다. 그러나 스펜서 사상을 민권적 입장에서 재해석한 경우는 'Social Statics'를 마쓰시마(松島剛)가 번역한 『사회평권론』(社會平權論, 1881)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에 대해 이타가키 다이스케는 '자유민권운동의 교과서'라고 극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스펜서의 'Social Statics'를 다른 관점을 가진 두 명의 일본인, 즉 오자키 유키오와 마쓰시마를 통해 번역·출간되었을 정도로 스펜서의 사회진화론 열풍이 당시 일본 사회의 초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마쓰시마의 번역서는 스펜서의 계몽 철학과 사회 진화 원리를 자연권으로서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관점, 즉 민권론적 입장에서 개작(改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오자키가 번역한 스펜서의 『권리제강』은 적자생존 원칙에 입각한 생물학적이고도 진화론적인 원리를 현실의 사회질서 속에 그대로 합리화한다는 측면에서 일본의 국가주의적 관점, 즉 국권론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권론 관점에서 스펜서의 사상을 적극 수용한 사람에 메이로쿠샤 회원 출신인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가 있다. 가토는 스펜서의 사상을 일본적인 상황 속에서 재해석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사상으로서 '사회 다위니즘'

을 제창하였다. 한때 가토는 『진정대의』(眞政大意, 1870), 『국체신론』(國體新論, 1874) 등의 저서를 내면서 천부인권론적 계몽사상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그가 자신의 천부인권론마저 부정하면서 대표적인 국권론자로 전향한 것이다. 그는 1882년 『인권신설』(人權新說)을 통해서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생물학적이고 진화론적인 원칙을 그대로 인간 사회에 적용하는 ‘사회진화론’을 소개하였다. 그의 사회진화론은 다윈(Charles Robert Darwin, 1809~1882)의 생물학적 진화론과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1903), 헤켈(Heckel) 등의 진화론 철학에 기반한 것이었다.

가토의 국가주의는 이제 인권을 제압하는 특성을 포함함과 동시에 생존경쟁과 자연도태에 따른 ‘우자필승’(優者必勝)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하게 된다. 그는 『인권신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조물주가 마침내 우리 개개인에게 영묘한 심신을 부여하고, 그와 함께 지귀지중(至貴至重)한 자유자치와 평등균일의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우리의 최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큰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망상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조물주가 처음부터 여러 가지의 안목을 갖추고 이 안목에 따라서 각각의 종별 사물을 만들어냈다는 주장은, 절대 실험을 통해 나온 것도 아니고 완전히 망상에서 생겨난 소위 ‘안목주의’에 속하는 것이다.”
(가토 히로유키, 1882, 『인권신설』 18-50)

그래서 가토는 “천부인권사상이야말로 만물법(萬物法)의 실리(實利)에 부합하는 인과주의와는 전혀 다른 망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사회진화론은 인류가 우승열패의 법칙을 통해 발전해 온 것을 증명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그래서 동물적인 야만 상태에서 개화의 시기로 넘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승열패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권력 경쟁을 매개로 하여 세계의 개명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 가장 잘 적응하는 것이 사회의 우자(優者)가 되는 길이라고 보았다. 그는 당시 유럽 사회의 부르주아 계급이 대권을 장악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하였다.

구미 각국의 경우는 상등평민(上等平民, 부르주아지)이 사회의 권력을 점유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 과격한 폭동을 일으켜 사회를 문란케 하는 경우

도 있다. 그렇지만 일본에 있어서는 아직 구미의 상등평민에 비교할 수 있는 중족[계급]도 없는 상황이 아닌가? (가토 히로유키, 1882, 『인권신설』 41-82)

말하자면 가토는 상등평민(부르주아 계급)을, 유럽 사회의 대권을 장악한 후 국가 사회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현실적인 주체로서 인정하고 평가한 것이었다. 그는 상등평민이야말로 지식·재능·덕의·품행·학예·재산·농공상업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를 주도할 실제 성취실적과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 계급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일본도 국가 구축을 위한 부르주아지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그런 과정에서 권력투쟁을 통하여 자유민권운동에 집약된 민중의 요구와 권리를 억압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가토가 말하는 국가 형태는 시세와 민도에 따라서 제한된 형식으로서 사회의 우자(優者)인 ‘상민평등’이 주도하는 것인데, 이는 개인과 국가 간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비민주적인 전제 정부가 통치하는 강력한 국권론을 주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진화론은 1880년대 이후 독일계 철학사상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더욱 확고한 국가주의 사상, 즉 국권론이 주도하는 절대주의 정치체제를 구축하였다. 이후부터 메이지 초기 사상을 주도한 영국·프랑스 중심의 공리주의 및 계몽주의 사상에 바탕한 자유민권운동은 결정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그 대신에 메이지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개혁 작업을 통해 독일의 절대계몽주의 철학이 지도 이념으로 번역·수용되었다. 1881년 참사원 의관이었던 이노우에 고와시(井上毅)는 「인심의견교도안」(人心意見教導案)을 통해 자유민권운동을 일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한학(漢學) 장려하여 충애공순(忠愛恭順)의 도를 가르치고, 독일학을 장려하여 혁명사상의 온상이 되고 있는 영불학(英佛學)의 전례없이 거칠게 나아가는 그 기세를 꺾어야 한다. ... 독일(프로이센)만은 ‘정부가 곧 왕실의 정부’라고 생각하는 일본과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독일학을 장려하면 천하 인심을 점차 보수의 기풍으로 만드는 데 유용할 것이다. (이노우에 고와시, 「인심의견교도안」, 1970, 『井上毅傳·史料編第1』, 국학원대학편, 70-75)

윗 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노우에는 전통적인 일본 사상으로서의 한학과 서구 절대계몽사상인 독일학을 통해서 민심을 안정시키고, 부국강병과 식산흥업 중심의 국가주의 개혁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독일학을 적극적으로 수용·장려한 사람에 이노우에 데쓰지로(井上哲次郎, 1880~1963)가 있다. 독일학을 수용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노우에 데쓰지로는 주로 독일의 헤겔학과, 즉 하르트만(Karl Robert Eduard von Hartmann, 1842~1906)을 비롯한 독일 이상주의 사상가들의 국가 개념 연구에 주목하였다. 이노우에는 1891년 문부성이 위탁 추진한 「칙어연의」를 통하여 전통적·유교적인 가족주의 도덕과 근대 서구식 국가 유기체설을 결합하고자 하였다. 그의 국민도덕론은 주로 계몽주의적 관점에 선 서구식 도덕교육론을 비판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는 후쿠자와가 『학문의 권장』에서 언급한 ‘독립자존’ 개념 속에 복종의 개념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복종심 없는 일본의 하층민층이 파괴적인 형태의 혁명 운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였다. 즉, 후쿠자와 등의 예전 메이로쿠샤 회원이 지니고 있던 공리주의와 물질 숭상주의를 대신하여 독일 사상이 가지고 있는 이상주의와 정신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메이지 일본에서는 서구사상을 번역·수용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민권론과 국권론이 대립하는 과정을 거쳐왔다. 민권론과 국권론의 서구사상에 대한 수용 태도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민권론적 입장은 서구사상을 직역·소개하는 방식에서 일본적인 전통과 갈등할 수도 있는 다소 무모한 개념을 도입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반해, 국권론적 입장은 서구사상과 일본의 전통 유학 및 국학 사상 등과 타협하는 방식, 즉 일본의 절대 계몽주의 체제에 어울리는 사고로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번역 작업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번역사상은, 휴머니즘적인 요소를 자본주의적 근대화 과정에서 가장 최소화하는 사회 진화론으로 바뀌면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 방식의 절대주의 정치체제와, 서양문명을 이식하는 방식의 ‘전근대적 자본주의 발전 과정’이 결합하여 새롭게 서구문명을 수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V. 마치며 - 번역과 일본의 근대

1870년대 서구자본주의 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일본의 문명개화론자들은 서구식 문명인 과학 지식을 수용하는 한 과정으로서, 번역이 가지는 의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번역’이 타자로서의 서양문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본 고유의 문화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종합 인격체로서, 자본주의 문명의 일본식 근대화를 완성한다고 생각했다. 즉, 번역 그 자체는 단지 서구 자본주의 문명의 개념과 사상을 수용하는 지적인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타자와의 대화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자각하는 문화적 실천이라고 이해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사상가들이 번역하고 있는 서양문명에 대한 개념들은 일본의 전통주의와 새로운 근대주의 관점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예를 들어, 동양의 전통적인 노장 사상에서 비롯하고 있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철학적 개념과 서구식 자연과학의 실증 개념을 결합하여, ‘nature’를 ‘자연’(自然)으로 번역하는 것도 그런 측면의 하나이다. 또한 서양적인 민주 공동체를 언급하였던 ‘democracy’가 ‘민본주의’(民本主義)로 번역된 것도 한 예이다.

이는 동양적인 철학 원리로, 서양 언어가 가지고 있는 현실 세계를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제3의 객관화된 개념으로 완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제3의 개념으로서의 번역어가 이후의 일본 사회, 혹은 그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동양 질서체제가 인정·공유할 수 있는 언어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근대 문물을 받아들일 당시,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오랑캐라는 중화사상에 사로잡혀, 서구식 근대화에 대한 정체성을 찾기도 전에 일본이 청일전쟁 이후 동양사회의 강자로 등장하는 과정 속에서 방향을 잃고 갈팡지팡하고 있었다. 이미 일본은 자국에 수용된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신문명을 개척하고 있었다. 당시 동양사회에서 수용한 사회진화론은 ‘약육강식 우승열패’라고 하는 서구식 자본주의 문명을 그대로 이식하는 것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한국의 문명 수용은 주로 후쿠자와 유키치 등 일본의 문명개화론자가 번역한 ‘사회진화론적 관점’의 자본주의 문명의 경

힘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의 서구문명 수용은 사실상 일본의 경험에 의해 이미 걸러진, 다시 말해 일본에 의해 번역된 제2의 서구문명을 이식받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근대화와 그 번역의 문제는 단순히 타자의 문제점으로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근대 이후 동아시아 국가 간의 사상의 연계를 풀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한국의 근대화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 낼 수 있는 길은 일본의 근대 번역어의 성립 과정과 고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메이저 번역가의 지난한 번역 과정과 그 번역의 역사는, 그들의 노력의 결실을 그냥 받아들여 사용하기만 하는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서 단행본>

- 朴英燮, 1992, 『開化期國語彙資料集』 1-5, 박이정.
沈在箕, 1990, 『國語彙論』, 集文堂.
이혜영·윤종혁, 1997, 『한국근대학교교육 100년사연구(II)-일제시대의 학교교육』, 한국교육개발원.
이한섭·최경옥외, 2000, 『西遊見聞 語彙索引』, 박이정.
임성모역, 2000, 『번역과 일본의 근대』, 이산, 2000.
정재걸·이혜영, 1994, 『한국근대학교교육100년사연구(1)-개화기의교육』, 한국교육개발원.
최경옥, 2005, 『번역과 일본의 근대』, 살림출판사.
최경옥, 2003, 『韓國 開化期 近代 外來漢字語의 受容 研究』, 제이앤씨.

<한국서 게재 논문류>

- 송민, 1998, 「개화기 신생한자어휘의 계보」, 어문학논총 17, 국민대.
송민, 1998, 「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 국어생활 14, 국어연구소.

- 송민, 2000, 「經濟의 의미개신」, 새국어생활 10-1, 국립국어연구원.
 송민, 2000, 「時計의 차용」, 새국어생활 10-2, 국립국어연구원.
 송민, 2000, 「生存競爭의 주변」, 새국어생활 10-3, 국립국어연구원.
 송민, 2000, 「自由의 의미확대」, 새국어생활 11-1, 국립국어연구원.
 송민, 2000, 「사진과 활동사진, 영화」, 새국어생활 11-2, 국립국어연구원.
 송민, 2000, 「개화기의 신생한자어 연구(1)」, 어문학논총 20, 국민대.
 이한섭, 1987, 「西遊見聞에 받아들여진 일본의 한자어에 대하여」, 일본학 6,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원영희, 2001, 「한역 성경의 표현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규관대학교 대학원.
 이한섭, 1998, 「朴泳孝 상소문에 보이는 근대 일본어 어휘에 대하여」, 인문논총 42, 고대문대.
 최경옥, 2005, 「번역한자어의 한국 수용에 대하여」, 일본학보 62.
 최경옥, 2003, 「개화기 외래 번역한자어의 수용」, 일본학보 55.
 최경옥, 2003, 「개화기 외래 번역한자어의 수용」, 일본학보 56.
 최경옥, 2002, 「한국개화기에 있어 일본 번역한자어의 수용과 유입-혈의누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51.
 최경옥, 2002, 「한국에 있어서의 번역한자어의 연구」, 한양학회 10.
 최경옥, 2000, 「개화기 번역한자어의 수용과 유입」, 일본어학연구 2.

<일본서 단행본>

- 廣田榮太郎, 1969, 『近代譯語考』, 東京堂出版.
 吉川泰雄, 1977, 『近代語誌』, 角川書店.
 唐澤富太郎編, 1976, 『日本の近代化と教育』, 第一法規社.
 鈴木修次, 1981, 『日本漢語と中國』, 中公新書 626.
 柳父章, 1982, 『翻譯語成立事情』, 岩波新書189.
 木坂基, 1988, 『近代文章成立の諸相』, 和泉書院.
 福澤諭吉, 1866, 『西洋事情』, 尙古堂.
 福澤諭吉, 1876, 『世界國盡』, 尙古堂.
 山内洋一郎, 1993, 『近代語の成立と展開』, 和泉書院.
 森岡健二, 1969, 『近代語の成立-明治期語彙篇』, 明治書院.

- 森岡健二編, 1991,『近代語の成立-文體編』, 明治書院.
- 杉本つとむ, 1983,『日本語翻譯語史の研究』, 八坂書房.
- 松井利彦, 1990,『近代漢語辭書の成立と展開』, 笠間書院.
- 源了圓, 1968,「徳川時代における近代思想の形成」,『近代日本社會思想史 I』, 有斐閣.
- 佐藤亨, 1991,『近代語の成立』, 櫻楓社.
- 佐藤亨, 1986,『明治幕末初期語彙の研究』, 櫻楓社.
- 佐藤喜代治, 1983,『講座日本語の語彙』, 9-11, 明治書院.
- 進藤咲子, 1981,『明治時代語の研究』, 明治書院.
- 川村二郎・池内紀, 2000,『翻譯の日本語』, 中公文庫.
- 槌田満文, 1983,『明治大正の新語・流行語』, 角川選書63.
- 阪倉篤義等, 1971,『講座國語史』(1-6), 大修館書店.
- 丸山眞男, 1986,『文明論之概略を讀む』, 岩波新書325.
- 丸山眞男, 1998,『翻譯と日本の近代』, 岩波書店.

K C I

[abstract]

Translation and Modernization of Japan in Meiji Period

Choi Kyung-ok
(Hanyang University)

From a synchronic point of view, it is not reasonable to separate the issue of translation in the early Meiji period from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in Japan. It is because one of the major premises for this westernization is the extensive translations of western literature.

Meanwhile, from a diachronic point of view, it is indispensable to take the culture of the Tokugawa period which succeeded Meiji period into consideration. What made it possible to accomplish such highly refined works of translation throughout almost every field of the culture was inevitability of the historical experience, linguistic method, and intellectual ability.

The concept of western civilization that Japanese Sages had translated was introduced to Japan mainly by the members of Meirokusha. They could not ignore the Emperor system-centered arbitrary Illuminism that traditional imperialism emphasized, although they had accepted the French Illuminism and the British utilitarianism within the point of a moderate civil rights movement. Thus, the understanding of western civilization that members of Meirokusha had accepted was divided into the traditional doctrine of national rights and the modern doctrine of civil rights. Moreover, the Meiji government could not help but taking a line to establish a new and westernized civilization due to the situation that the conquest of the Great Powers over Asia had been elevated. After this, Meirokusha became disorganized.

In this vortex, the translation of western language came to be developed by the perspective of harmonizing Japanese traditionalism and new modernism. In

other words it means the achievement of the objectified third notion that could comprehend scientifically and positively the reality derived from western languages. The language of translation as the third notion came to have significance as a language that could acknowledge and share the oriental system like Japanese society or others under similar circumstances.

This context tells us that the modernization and issue of translation in Japan should not be neglected as someone else's matter, but instead should be taken as a key factor that is able to solve the relations of conception among nations after the modern age led mainly by Korea and Japan.

▶Key Words: translation of Meiji period, modernization of Japan, Meirokusha, acceptance of the western conception, civilization.

최경옥

소속: 한양대학교, 시간강사

전공: 일본어학, 번역한자어

roseok1130@yahoo.co.kr

논문투고일: 2005년 10월 28일

심사완료일: 2005년 12월 3일

게재확정일: 2005년 12월 10일

